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지난 21일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애스의 시티오프 팜 파크에서 사우스웨스턴대학팀과 야간 경기를 하고 있다.

/플로리다=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최형우 3안타·브룩스 호투... 깨어나는 '야성'



**플로리다 TIGERS 캠프를 가다**  
김여울 기자

美 독립리그·대학팀과 연습경기 4경기 진행... 주전들 조기 가동

최형우-김선빈-나지완 연속 안타 박준표-전상현-문경찬 필승조 점점

맷 감독 "주전 위주로 시즌 준비 선수들 움직임 만족스럽다"

KIA 타이거즈의 2020시즌 퍼즐 조각이 빠르게 맞춰지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애스에서 워밍업을 해 온 KIA는 지난 21일 연습경기 일정에 돌입했다. 연습경기 첫날 KIA는 주야간 두 경기를 소화했다.

오후 1시 플로리다 독립리그 연합팀과 홈경기를 치른 KIA는 오후 6시 장소를 옮겨 사우스웨스턴대학팀과 대결했다. 22·23일에는 독립리그 연합팀과 홈 경기를 이어갔다.

승패를 가리는 게 아닌 '연습'에 초점을 맞춰 4경기를 진행했다. KIA는 쓰리아웃이 아닌 투수들의 설정 투구수에 따라 공수교대를 하며 선수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다.

완벽한 연습경기는 아니지만 예년과는 다르게 주전 선수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21일 야간경기과 23일 경기에 주전 선수들을 투입했다.

21일 박찬호(유격수)를 투타자로 해 김선빈(2루수)-최형우(지명타자)-나지완(좌익수)-터커(우익수)-장영석(3루수)-유민상(1루수)-한승택(포수)-최원준(중견수)이 투입됐다.

23일에도 포수 자리에 백용환이 먼저 들어간 것을 빼고 다른 자리는 동일했다.

지난 시즌을 생각하면 이창진과 김주찬이 변수가 될, 사실상의 베스트라인업이다.

지난해 중견수 자리를 지킨 이창진은 허리 통증으로 중도 귀국했고, 허벅지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은 김주찬은 예상과 달리 캠프에 조기 합류했지만 천천히 실전 준비를 하고 있다.

마운드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선발 경쟁 중인 홍상삼, 홍건희, 차명찬에 이어 확실한 선발인 애런 브룩스가 23일 선발로 마운드에 섰다. 이날 팔꿈치 통증으로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는 하준영을 제외하고 지난해 KIA의 필승조 박준표-전상현-문경찬도 나란히 마운드에 올랐다.

백업 선수들 위주로 진행되던 예년의 연습경기 초반과는 다른 모습이다.

일찍 주축 선수들을 움직인 윌리엄스 감독은 "이틀에서 시즌 준비가 이뤄질 것 같다"며 "베테랑들은 최대한 상위 타선에 놓아서 타석수를 많이 주려고 했다"고 라인업을 설명했다.

이날 브룩스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들어간 박준표도 "예년보다 투수들 페이스가 빠르다. 지금 타자들의 페이스도 정말 좋다"고 언급했다.

빠르게 캠프가 돌아가고 있지만 준비를 잘해 온 선수들은 윌리엄스 감독의 빠른 호흡에 잘 맞춰가고 있다.

박준표는 "처음 치고 괜찮았다. 처음에는 상체가 많이 나가는 바람에 중심이동이 빨랐는데 나중에 잡아서 괜찮았다"고 첫 등판을 평가했다.

문경찬 역시 "급한 것은 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며 "오랜만에 경기하니까 예전의 경기를 떠올리면서 타자 상대하는 느낌, 경기 페이스를 찾았다"고 언급했다.

최형우가 1타점 2루타 포함 3안타를 때려내는



23일 플로리다 독립리그 연합팀과의 경기에서 KIA 타이거즈의 김선빈(왼쪽)이 우전안타로 출루한 뒤 최형우의 우측 2루타 때 나지완의 환영을 받으며 홈에 들어오고 있다.

/플로리다=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등 타자들의 좋은 움직임도 윌리엄스 감독을 흐뭇하게 했다. 3회 2사에서 김선빈-최형우-나지완의 3연속 안타가 나오는 등 집중력도 보였다.

독립리그 팀이지만 만만치 않은 상대다. 150km가 넘는 공을 던지는 투수가 즐비하고, 특히 이날 선발로 나선 헨더슨 알바레스는 2013년 메이저 리그 마린스에서 노히트노런을 기록한 이력도 있다. 당시 0-0으로 맞선 9회말 와일드피치 끝내기 와 함께 기록된 노히트노런으로 화제가 됐다. 23일 경기가 끝난 뒤 윌리엄스 감독은 "선수들

이 많은 타석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타격에서 최형우가 특히 잘해줬다"며 "브룩스 투구수를 이날당 15구로 제한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필승조 선수들도 좋아 보였다"고 언급했다. 앞선 경기에서 백업-신에 선수들의 크고 작은 실수가 나오기도 했지만 윌리엄스 감독은 "과정의 일부"라며 이들을 독려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많은 경험을 할수록 좋아질 것이다"며 자신 있는 플레이를 주문했다. / wool@kwangju.co.kr

## 첫 홈런 주인공은 '이진영'

독립리그 연합 경기 투런포... 체중 늘리며 힘 키우기 성과

겨우로 가는 이진영이 스프링캠프 1호 홈런 주인공이 됐다.

이진영은 지난 21일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애스 테리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플로리다 독립리그 연합팀과 연습 경기에서 우측 담장을 넘기며 KIA의 캠프 첫 홈런을 장식했다.

이날 앞서 세 타석에서 범타로 물러났던 이진영은 9회 2사 2루에서 투런포를 날리면서 그라운드를 울렸다.

'체중 감량' 바람 속에서 홀로 몸을 불린 이진영의 노력이 결과로 이어졌다.

연습 경기에 앞서 이진영은 "비시즌에 웨이트 열심히 하면서 살찌웠다. 힘 빠질까 봐 캠프 와서 먹는 것도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있다"며 "프로에 입단했을 때 74kg였는데 지금은 91kg다. 힘으로 보여주겠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대로 이진영은 연습경기 첫 경기에서 시원하게 담장을 넘겼다.

이진영은 "상대 투수가 빠른 공을 던지길래 이를 노렸다. 홈런 치면 나지완 선배님이 클러브 주

신다고 했다"며 웃었다.

여는 선수와 다른 이진영의 행보다. 캠프를 준비하고 또 치르면서 많은 이들이 날렵해진 몸을 보여주고 있다.

팀의 미래인 최원준은 물론 주축 선수인 나지완과 김선빈 등도 눈에 띄게 체중을 감량하면서 스피드를 더했다.

서재용 투수 코치도 탄수화물 섭취를 최대한 줄이고 '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감량 열풍에 동참하고 있다.

입기영, 문선재처럼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다 보니 저절로 몸무게가 준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진영은 힘을 더하겠다는 목표에 맞춰 다른 선수들과 반대로 가고 있다.

올 시즌 외야에서 경쟁을 하게 된 동기 최원준은 "나는 겨울에 6kg 빠고 여기 와서 4kg를 더 뺐다. 마무리캠프 때 많이 찌서 둔해지는 것 같아서 몸무게를 뺐다. 진영이는 피지컬이 좋아서 살찌도 된다"며 친구 편을 들어줬다.

/wool@kwangju.co.kr



이진영(오른쪽)이 지난 21일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애스 테리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플로리다 독립리그 연합팀과의 연습 경기에서 우측 담장을 넘긴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플로리다=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기, 프리메라리가 입성

스페인 마요르카와 입단 계약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입성을 앞둔 기성용(31)의 새로운 동지가 RCD 마요르카로 결정됐다. 스페인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스페인 마요르카 지역 매체인 '풋볼마요르카'는 지난 22일(한국시간) '기성용이 마요르카를 선택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기성용이 마요르카와 계약하기 위해 21일 스페인으로 출발했다"라며 "기성용과 마요르카가 곧 계약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기성용의 영입으로 마요르카의 중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기성용은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180경기 이상 뛴 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성용은 뉴캐슬과 계약이 1월에 끝나면서 프리메라리가에서 뛰려면 몇 주 정도 체력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매체인 아스(AS)도 "마요르카가 뉴캐슬과 결별하면서 자유계약 신분인 기성용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며 "기성용이 마요르카와 협의를 위해 마요르카의 팔마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성용은 뉴캐슬과 결별한 지난달 말 이후 K리그 복귀를 노렸지만 불발됐고, 이후 스페인, 카타르, 미국프로축구(MLS)의 여러 팀과 협상하며 새 동지를 물색했다.

스페인 2부의 SD 우에스카, 프리메라리가의 레알 베티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현지 언론 등을 통해 마요르카가 영입전에서 앞서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연합뉴스

## 조아연, 아쉬운 준우승

LET 호주 레이디스 클래식



조아연(20)이 유럽여자프로골프 투어(LET) 제프 킹 모터스 호주 레이디스 클래식(총상금 24만유로)에서 준우승했다.

조아연은 23일 호주 본밭 골프리조트(파72·6249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2안타와 70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14안타와 274타를 친 조아연은 스테파니 키리아쿠(호주)에 8타 뒤진 단독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최근 3주 연속 호주 대회에 출전한 조아연은 앞서 2주간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서 16위와 6위에 각각 올랐고, LET 대회로 진행된 이번 주 호주 레이디스 클래식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우승한 키리아쿠가 아마추어 신분이라 우승 상금 3만6000유로(약 4700만원)는 조아연 차지됐다. 조아연은 3라운드까지 선두 키리아쿠에 3타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이날 역전도 바라볼 수 있었다.

하지만 조아연은 초반 6개 홀에서 보기 3개를 쏟아냈고, 반면 키리아쿠는 버디 4개를 몰아쳐 순식간에 10타 차로 벌어지는 바람에 일찌감치 승부가 정해졌다.

/연합뉴스